

“Bringing Down the House” --- Sample Translation in Korean

뒷 표지

“카지노 무너뜨리기 (or 카지노 공략)” 에
 쏟아진 각계의 찬사

“엘모어 레너드의 작품세계를 연상시키는
 풍부하고도 날카로운 어휘력을 자랑하는
 대화로 가득찬 옥탄가 높은 이야기 , 미국의
 나스카 자동차 경주 대회를 보는 듯한
 숨막히게 빠른 플롯 전개 과정 , 카지노
 테이블 양쪽에 자리한 인물 하나 하나가
 마치 인사이드 스트레이트 (역주 : 포커에서
 스트레이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4장의
 카드가 있고 중간에 들어갈 한 장의 카드만
 필요한 패) 같이 생생하며 이들은 스피드를
 복용한 딜러처럼 재빠르게 패를 던지고
 점수를 계산한다 . 위기를 기회로 거머쥐고
 은행하나 규모의 판돈을 걸며 , 달러를
 새발의 피만큼도 여기저기 않는다 .”
 -----로렌조 카아카테라 , “갱들과 거리의
 소년들 ” 의 저자

“저자 벤 미즈릭은 우리가 늘 가고자
 꿈꾸는 , 그러나 운 좋은 극소수의
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극히 드문 곳으로
 독자들을 데려간다 . 바로 카지노를 이기고
 돈을 따는 것이다 . 이 자유분방하고
 소설보다도 더 진기한 이야기는 마치 로빈
 후드와 “오우션즈 일레븐 ”의 래트 팩
 패거리들을 하나로 합친 것과 같다 .
 부자에게서 훔쳐 가난한 자들에게
 나눠주던 우리의 영웅이 이제는
 부자들에게서 훔쳐서 , 흠 , 자신이 같은
 것이다 .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이
 20세기판 의적의 이야기에 열광할 것이다 .”
 -----마이클 카포조 , 뉴욕 타임즈 베스트 셀러
 “해변 가까이 ”의 저자

본문 중에서 (발췌)

케빈은 오백달러 짜리 칩 세개를 집으면서
 마치 칵테일 웨이트리스를 찾는 척 주변을
 둘러보았다 . 결눈질을 하다가 자신과 한
 팀인 “스파터 (역주 : 블랙잭 테이블의 패가

좋은지 나쁜지를 미리 살펴보고 알려주는
 역할)”를 발견했다 . 빨간머리의 미녀로
 가슴선이 깊게 파인 블라우스를 입고 짙은
 화장을 하고 있었다 . 아무도 그녀가
 MIT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하버드
 경영대학원을 우등생으로 다녔다는 것을
 짐작할 수 없을 정도였다 . 그녀는 판을 볼
 수 있을 정도로 블랙잭 테이블 가까이
 있었지만 의심을 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
 또한 유지하고 있었다 . 그녀와 시선을
 마주친 케빈은 그녀가 곧 보내올 신호를
 기다렸다 . 오른팔을 구부리면 판돈을
 두배로 늘리라는 신호이고 팔짱을 끼면
 가진 돈을 모두 걸라는 신호 , 그리고 양팔을
 옆으로 늘어뜨리면 거는 돈을
 최소화하라는 신호가 된다 .
 하지만 그녀는 이 세가지 중 어떤 신호도
 보내지 않았다 . 대신 , 오른손으로
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는 것이었다 .
 케빈은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 보았다 .
 자신이 그녀의 신호를 맞게 읽었는지
 확인하려고 . 다음 순간 , 그는 딱 칩들을
 재빨리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 .
 머리카락 속에 들어간 손은 단 한가지 만을
 의미했다 . 카지노를 떠나라 . 지금 당장 .
 감사의 말 (or 도움주신 분들께)

사이먼 앤드 슈스터의 훌륭한 두 분의
 편집자 , 도미니크 앤푸조와 레슬리
 메레디스에게 제일 감사하다는 말씀을
 드린다 . 편집과정내내 집중할 수 있도록
 도와준 도로시 로빈슨에게도 사의를
 표한다 . 내 뛰어난 출판대리인 데이비드
 빌리아노 (빅), 또 빅의 에이전시에서
 근무하는 마이크 해리엇과 제이슨
 솔에게도 빛을 많이 졌다 . 이 프로젝트가
 살아남도록 헐리우드 구조속에서 잘
 이끌어준 인테버의 브라이언 립슨과 이
 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준 이글 코브
 엔터테인먼트의 제이 샌더스에게도
 감사드린다 .

또한 , 여기 보스턴의 “카드를 세는 ”
 친구들의 믿기지 않을 정도의 협조와
 전문적 기술이 없었더라면 이 책은 쓰여질

수 없었다 .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볼
기회가 없는 라스베가스의 한 면을 만나게
해준 친구들 , 정말 고맙네 .

언제나처럼 , 부모님과 형제들의 변함없는
지원에 감사한다 . 그리고 또한 타냐
첸에게도 : 아름다운 타냐 , 그대는 내
눈속에서 네온사인처럼 반짝인다오 .

제 1 장 (or 첫번째)

시각은 10분전 새벽 3시 , 케빈 루이스는
금방이라도 꿈아떨어질 것처럼 보였다 .
그의 앞 테이블에는 빈 마티니 잔 3개가
놓여있고 , 양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리고
몸을 앞으로 기울인 그는 손에 든 카드를
뚫어져라 쳐다보았다 . 딜러는 아직도
인내심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

마티니 잔들 앞에 잔뜩 쌓인 보라색
 칩들때문이었다 . 그러나 다른 도박객들은
 점점 초조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
 있었다 . 그들은 이 젊은 친구가 어서 돈을
 걸던지 아니면 딴 돈을 싸가지고 의자밑에
 놓인 낡아빠진 운동가방에 넣어서
 보스턴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. 제기랄
 그만하면 충분히 따지 않았나 ? 대학교
 졸업반 학생이 3만불이나 되는 돈을 어디에
 쓸 거란말야 ?

테이블의 분위기를 눈치챈 딜러가
 블랙잭 슈 (Blackjack Shoe:역주 :블랙잭 게임에서
 딜러가 카드를 한장씩 빼서 주는 플라스틱
 상자 . 보통 카드를 여러 세트 가지고 하는
 멀티플 덱 (multiple deck) 게임에서 쓰인다)를
 마침내 가볍게 두드렸다 . “손님 , 이제
 결정을 내리셔야겠습니다 . 먼저 판은
 굉장했습니다 . 한 판 더 하시겠습니까 ?”
 케빈은 떨리는 손을 감추려고 애를
 쓰고 있었다 . 진실을 말하자면 , 그의 진짜
 이름은 케빈이 아니었다 . 거기다가 그는
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 . 뺨의 불그스레한
 취기는 사실 호텔방에서 그려놓은
 것이었다 . 또한 , 3만 달러 상당의 칩들은
 그의 손을 떨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지만
 그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을 감동시킬
 만큼은 안되었다 . 그들은 그의 의자 밑에
 놓여있는 낡아빠진 운동가방속의
 내용물에 훨씬 큰 관심을 보일 것이었다 .

케빈은 긴장을 풀려고 숨을 깊이
 쉬었다 . 똑같은 상황을 벌써 수도 없이
 겪었고 오늘밤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었다 .
 그는 오백달러 짜리 칩 세개를
 집으면서 마치 칵테일 웨이트리스를 찾는
 척 주변을 둘러보았다 . 결눈질을 하다가
 자신과 한 팀인 “스파터 (역주 :블랙잭
 테이블의 패가 좋은지 나쁜지를 미리
 살펴보고 알려주는 역할)”를 발견했다 .
 빨간머리의 미녀로 가슴선이 깊게 파인
 블라우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.
 아무도 그녀가 MIT공대에서 기계공학을
 전공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
 우등생으로 다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없을
 정도였다 . 그녀는 판을 볼 수 있을 정도로

블랙잭 테이블 가까이 있었지만 의심
 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 또한 유지하고
 있었다 . 그녀와 시선을 마주친 케빈은
 그녀가 곧 보내올 신호를 기다렸다 .
 오른팔을 구부리면 판단을 두배로
 늘리라는 신호이고 팔짱을 끼면 가진 돈을
 모두 걸라는 신호 , 그리고 양팔을 옆으로
 늘어뜨리면 거는 돈을 최소화하라는
 신호가 된다 .
 하지만 그녀는 이 세가지 중 어떤
 신호도 보내지 않았대 . 대신 , 오른손으로
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는 것이었다 .
 케빈은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 보았다 .
 자신이 그녀의 신호를 맞게 읽었는지
 확인하려고 . 다음 순간 , 그는 탄 칩들을
 재빨리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 .
 “오늘밤은 이 걸로 끝내야겠군 .” 취한 듯
 혀 꼬부라진 소리로 딜러에게 말을 건넸다 .
 “마지막 마티니는 마시지 말 걸 .”
 걸으로는 태연했지만 사실 그는
 속으로는 온 몸에 불이 붙은 심정이었다 .
 스파터를 다시 한번 걸눈질했다 . 그녀의
 손은 아직도 빨강머리속에 깊숙히 묻혀
 있었다 . 맵소사 . 지난 여섯달 동안 , 케빈은
 스파터가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본 적이
 없었다 . 그 신호는 현재의 판세하고도 ,
 케빈으로 하여금 1시간도 채 안되는
 시간동안 3만불을 따게 해준 정확한
 러닝카운트 (역주 : 매번 새로 카드를 섞은
 이후부터 딜러가 나누어준 모든 카드의
 가치의 합계)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었다 .
 머리카락 속에 들어간 손은 단 한가지
 만을 의미했다 . 카지노를 떠나라 . 지금
 당장 .
 케빈은 운동가방을 어깨에 둘러메고
 보라색 칩들을 주머니 마다 쭈셔 넣었다 .
 딜러가 그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
 물었다 . “고액 칩으로 바꾸지 않으셔도
 되겠습니까 ?”

어쩌면 딜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
 감지했는지도 몰랐다 . 케빈이 막 팁을
 주려는 순간 신사복차림들이 눈에
 들어왔다 . 신사복을 입은 3명이 가장
 가까이 있는 크랩스테이블을 돌아오고

있었다 . 하나같이 커다란 덩치에 이쪽을
노려보면서 . 인사치레 주고 받을 시간은
없었다 .

“됐어 .” 케빈은 테이블에서
뒷걸음질치며 말을 이었다 . “내 바지
주머니 속에서 칩들이 덜그럭 거리는 게
훨씬 좋거든 .”

그는 돌아서서 빠른 속도로 걸기
시작했다 . 그들이 머리위에서 지켜보고
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. 바로 “하늘의
눈 ”이라고 불리우는 감시 장치를 통해서 .
그러나 , 자신을 잡으려고 소동을 벌일
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. 그들은 단지
자신들의 돈을 지키려고 하는 것 뿐이었다 .
그래도 , 위험을 감수할 생각은 없었다 . 만일
신사복차림들이 자신을 붙잡는다면 ... 그
이후의 이야기는 누구나 들어서 알고
있었다 . 뒷 방 . 겁주기 전략 . 때로는
폭력까지 . 이 동네가 제 아무리 새로운
모습으로 꾸미려고 애써도 깊숙히
들어가면 베가스는 여전히 베가스였다 .
오늘밤 행운의 여신은 케빈 편이었다 .

아무 사고없이 무사히 카지노 밖으로 나와
불야성을 이루는 스트립대로를 가득 메운
관광객들 속으로 섞여들 수 있었다 . 1분 후 ,
그는 길 건너편 네온사인인 현란한 택시
승강장 앞 벤치위에 앉아 있었다 .
운동가방은 무릎에 올려놓은 채로 .
카지노에서 신호를 보냈던 아까의
빨강머리 미녀가 담뱃불을 붙이면서
옆으로 털썩앉았다 . 그녀의 손이 떨리고
있었다 . “정말 빌어먹게 아슬아슬했어 . 그
인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걸어
나온거야 . 윗층에서 게임내내 지켜봤던 게
틀림없어 .”

케빈은 머리를 끄덕여 동의한다는
표시를 했다 . 자신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.
가슴은 온통 땀에 절어 있었다 . 이보다 더
근사한 기분을 맛볼 수는 없었다 .
“오늘 밤은 이 걸로 끝내야 할까 ?” 그녀가
물었다 .

케빈은 미소로 응답했다 .
“스타더스트에서 하자 . 거기선 아직도
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.”

그는 가방안에 손을 넣어 가득찬
 지폐뭉치를 더듬었다 . 모두 백불짜리로
 백만불이 약간 넘는 액수였다 : 케빈이
 관리하는 판돈으로 그 돈의 일부는 6개월전
 그를 끌어들인 베일에 쌓인 투자자들의
 돈이었다 . 이들은 케빈을 낚아빠진 아파트
 버려진 창고 , 심지어 MIT교실등지에 마련된
 가짜 카지노에서 훈련시켰다 . 그리고
 나서는 , 네온사인으로 뒤덮힌 이
 스트립대로로 내보낸 것이었다 .

케빈의 친구들 대부분은 지금 이 시간
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거나 , 맥주를
 마시거나 , 보스톤 레드삭스팀의 성적을
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. 그는 그러나
 이 곳 라스베가스에서 남의 돈 백만불로
 스틸만점의 삶을 살고 있었다 . 곧 , 이 모든
 것은 무너져 내릴지도 몰랐다 . 하지만 ,
 케빈은 상관하지 않았다 .
 그가 이 시스템을 계발한 것은 아니지
 않는가 . 그는 단지 그 것을 이용할 줄 아는
 극소수의 운 좋고 머리 좋은 사람들 중
 한명일 뿐 ...

제 2장 (or 두번째)

보스턴 , 현재

백불짜리로 2만 5천불이 양쪽 허벅지에
나뉘어 묶여 있었다 . 5만불은
벨크로 (역주 :흔히 짝짝이라고 불리며
가방이나 옷등에서 이음새 연결시 접착식
테잎처럼 쓰임)가방에 넣어 가슴에
테잎으로 붙여놓은 상태였다 . 또다른
5만불은 내 상의 주머니에 가득차 있었고
10만불은 등허리 부분에 숨겨져 있었다 .
미술린 타이어 맨과 마약거래상의 중간
쯤 되는 기분이었다 . 몸은 잔뜩 부풀어
오르고 신경은 곤두선 채 , 회전 유리문을
지나 로간 공항청사로 들어갔다 .
에어컨으로 차가워진 공기가 얼굴을
때렸다 . 잠시 멈춰서서 갈 방향을
가늠했다 . B청사는 메모리얼 데이 (역주 :
한국의 현충일에 해당하는 공휴일) 연휴를
맞아 보스턴을 떠나는 대학생들로 붐비고
있었다 . 배낭을 메고 , 험렁험렁한 밑단이
끌리는 청바지 차림에 , 야구모자를 쓰고
운동가방을 든 대학생들로 모든 사람이
제각각의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는
안무되지 않은 발레를 --- 현대적인 미국의
공항에서 볼 수 있는 --- 보는 느낌이였다 .
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나서 이 사람들의
물결에 합류했다 .
타일이 깔린 바닥위를 걸어가며
여기저기 굽힌 자신의 낮은 가죽구두를
내려다보면서 계속 시선을 낮추었다 .
편하게 행동해야지 , 편하게 생각해야지 ,

그냥 편하게 있어야지 ... 내 등에 묶어진 새
 BMW 한 대 가격 만큼의 돈에 대해 생각하지
 않으려고 애썼다 .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는
 돈은 침실이 2개인 콘도를 살 경우 보증금을
 낼 수 있는 액수라는 것도 생각않으려 했다 .
 다른 사람과 똑 같이 보이는데 초점을
 맞췄다 . 대학생으로는 안보이더라도 ,
 대학원생이나 조교 혹은 짐 나르는 것을
 거들어주러온 오빠나 형으로는 통할 수
 있을테니까 . 이 모든 불협화음 , 즉
 연방항공국 주레리포트에 포함되는
 통계의 일부분인 것처럼만 보이면 되는
 것이다 . 편하게 행동해야지 , 편하게
 생각해야지 , 그냥 편하게 있어야지 ...

갑자기 , 스톤헨지 거석의 현대판이라고
 할 거대한 조형물이 앞에 턱 나타났다 : 두
 대의 공항용 금속탐지기가 나란히 서
 있었고 그 옆에서는 허리높이의 컨베이어
 벨트가 끊임없이 상자모양의 엑스레이
 투시기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었다 .
 맥박이 빨라지는 가운데 속으로 내
 차림새를 점검했다 . 소매밖으로 지폐
 뭉치가 보이지도 않고 셔츠의 단추 사이로
 지폐 한 귀퉁이가 삐죽이 나와 있지도
 않았다 . 줄을 따라 앞으로 움직였다 . 내
 앞에는 배꼽 청바지를 입은 예쁘장한
 갈색머리 여성이 서 있었는데 나는 그녀가
 들고 있던 스티커로 뒤덮인 커다란
 수트케이스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걸
 도와주겠다고 자청하기까지 했다 .
 편하게 행동해야지 , 편하게 생각해야지 ,
 그냥 편하게 있어야지 ...

“다음 .” 회색의 로간 공항 유니폼을 입은
 키 큰 흑인여자가 내 차례라고 손짓했다 .
 오른쪽 견장에 이름표가 달려있었지만 ,
 나는 흘러내린 땀으로 눈이 따가와 읽을
 수가 없었다 . 짹짜게 ---그러나 별 일 아닌 듯 --
 -눈을 깜박여 땀을 털어내고는 벽에서
 뜯어낸 문틀처럼 보이는 금속탐지기를
 걸어서 통과했다 .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이
 금속을 찾기 위해 내 몸속을 훑고 지나갔다 .
 숨쉬기가 편해지는가 싶은 순간 , 고성의
 금속음이 비명처럼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.
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.

이름표를 단 그 여직원이 내게
탐지기를 다시 통과하라고 지시했다
“주머니안에 든 금속물질은 다 꺼내고 다시
한 번 지나가십시오.”

목이 막혀왔다 . 손은 본능적으로
저고리 아래에 불룩 솟은 곳으로 뻗었다 .
백불짜리 지폐뭉치들을 허리와 다리에
두르고 나니 , 내가 마치 치질용 좌약 모양을
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.
제기랄 , 핸드폰을 빼놓는 걸
잊어버렸잖아 .

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의식하며
코트속으로 손을 넣어 노키아 핸드폰을
찾았다 . 그 여직원의 시선이 내게 고정된
것이 느껴졌다 . 만일 그녀가 내게 외투를
벗으라고 하면 끝장이었다 . 여기저기
불룩한 모습을 볼 것이고 그러면 만사가
틀어지는 것이다 . 물품신고를 하지 않고
공항의 보안시스템을 통과하려고
시도하는 사례들에 관한 자료조사를
하느라 지난 6개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
나는 세관법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.

보안요원은 48시간동안 적발된 사람을
구금할 수 있다 . 창문이 없는 방으로 끌고
들어가서 때로는 의자에 앉히고 수갑을
채워놓기도 한다 . 이어 연방
마약단속국 (DEA: Drug Enforcement Agency)이나
연방수사국 (FBI) 요원들을 불러들인다 .
물건을 압류하는데 때로는 영수증도 주지
않는다 .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여러명의
변호사를 고용하고 여러통의 편지를
써야하며 수도 없이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.
아마도 6개월 , 어쩌면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.
그동안 , 연방국세청 (IRS) 직원들은 마치
회색양복을 입은 메뚜기 떼처럼 당사자를
덮칠 것이다 . 봉지에 든 백색가루를 사려고
돈을 운반하는 중이 아니었다는 것을
입증할 책임은 적발된 당신에게 있다 .
왜냐하면 , 세관 직원들은 돈에서 코카인
냄새를 맡기 때문이다 . 특히 1백불짜리
지폐들은 더더구나 . 유통중인 1백불짜리
지폐의 95퍼센트에는 극소량의 코카인이
조폐과정에서 돈의 섬유질 성분

들어간다고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다 . 다시
 말해서 특수 훈련된 세관용 개들은
 마약거래상들을 집어내기 전에 직업적인
 블랙잭 도박사부터 더 빨리 냄새로 찾아낼
 수 있다는 의미이다 . 개들한테는 ---그리고
 세관요원들에게도 --- 마약상과 도박사는
 같은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.
 공포로 등이 흠뻑 젖는 가운데 나는 그
 여직원에게 내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.
 그녀는 마치 한 번도 핸드폰을 본 적이 없는
 것처럼 들여다보더니 앞 뒤로 한번씩
 뒤집어 보고는 내게 돌려주었다 . 내
 뒤에서는 매듭달염한 셔츠를 입은 한 젊은
 친구가 컨베이어 벨트위에 화분을
 올려놓으려 애쓰고 있었다 . 이름표를 단 그
 여직원이 그 모양을 보고 눈동자를 굴렸다 .
 그러더니 , 고맙게도 , 내게 지나가라고 손을
 흔드는 것이었다 .
 “다 되었습니다 . 좋은 비행 되십시오 .”
 비행기 탑승장으로 쓰러질 듯
 걸어가면서 나는 거의 숨도 못 쉴
 지경이었다 . 아메리카 웨스트 69편 . 보스턴
 출발 베가스 직항 . 금요일 밤의 네온사인
 특급 . 사람들이 수속대 앞에 이미 줄을 서
 있었다 : 떠들석하고 , 술에 취한 채 ,
 대부분은 남자들로 기대감에 들뜬 모습이
 확인했다 .
 케빈 루이스가 조용히 줄 뒷쪽에서
 기다리고 있었다 . 나는 즉시 그를
 알아보았다 . 큰 키에 , 운동선수 같은 몸매 ,
 그러나 어깨는 수줍은 듯 살짝 굽어 있었다 .
 검은 머리 , 검은 눈 , 널찍하고 소년같은
 얼굴이 술많은 검은 머리밑으로
 자리잡았고 어딘가 이국적이지만 , 그
 이상은 어느 계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
 형이었다 . 그의 혈통은 동양계 , 라틴계 ,
 아니면 이탈리아계나 러시아계라고 할
 수도 있었다 . 나처럼 , 그도 비행기에
 오르는 대부분의 대학생들보다 나이가
 많았지만 그 무리속에 쉽게 동화되었다 .
 그의 나이는 스물 한살로도 , 스물 여섯살 ,
 아니면 서른 다섯살로도 보였다 . 청재킷을
 입고 야구모자를 쓰면 보스턴 대학에
 다니는 학생으로도 통할 것 같았다 . 양복을
 입고 넥타이를 매면 월가의 증권맨으로도

손색이 없었다 . 지금은 , 그는 MIT스웨터와
혈령한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. 전형적인
MIT생의 차림으로 그의 부모가 선망하는
모습이었다 .

그는 내 달아오른 뺨을 보더니 미소를
지었다 . “그게 바로 내가 느끼는 거지 .
날마다 .”

그의 호기는 살짝굽은 어깨를 통해
느껴지는 수줍음과는 일치되지 않았다 .
여러면에서 케빈은 고전적인 MIT의
전형이었다 . 그의 이력서는 완벽했다 :
특출한 아이들만 가는 뉴 햄프셔의
기숙학교 엑세터를 수석으로 졸업한
수학과 과학의 신동 . 숫자에 대해 놀랄만한
재능을 가진 전기공학도 , 전과목
A학점으로 의예과 필수과목을 모두
이수하기도 했다 ---한편으로는 아버지를
기쁘게 하려고 , 또 한편으로는 도전자체가
그를 흥분시켰기 때문이었다 .

그러나 케빈의 이력서가 그의 모든
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아니었다 . 그의
인생에는 다른 면이 있었다 . 바로
네온사인과 보라색 카지노 칩으로 쓰여진
또 다른 단면 .

보스턴에서 MIT를 다니면서는 전과목
A학점을 받았었다 .
라스베가스에서는 마이클 조던 , 하워드
스턴 , 데니스 로드맨 , 그리고 케빈
코스트너와 파티를 즐겼다 . 엘에이 램즈
팀의 치어리더와 데이트를 즐겼고
플레이보이지 모델들과 어울려 술을
마셨다 . 루이지애나의 선상카지노에서
쫓겨나기도 했었고 라스베가스
카지노에서 팀 동료가 내쫓기는 것도
보았다 . 바하마 감옥에 갇힐 뻔한 것을
간신히 모면하기도 했다 . 연방국세청의
감사를 받았고 , 사설탐정들의 추적을
당했으며 , 허리에 권총을 차고 그늘진
경력을 지닌 무리들이 그의 사진을
지구 곳곳에 팩스로 전송하기도 했었다 .
이 과정에서 , 그는 작지만 한 재산
모았고 돈은 백달러 묶음들로 나눠 자신의
침대옆 옷장에 보관했다 . 아무도 그가

얼마나 벌었는지는 몰랐지만 소문에
 의하면 1백만불에서 5백만불 사이로
 짐작되었다 . 모두 합법적으로 판 것이었고
 그 중 단 한 푼도 그의 완벽한 , 전형적인
 이력서 덕분에 아니었다 .
 수줍고 , 공부벌레이고 , 성격좋은 케빈
 루이스는 거의 4년간을 이중인생을
 살았었다 . 이제 나는 그의 이야기를
 하려한다 .

“벨크로가 당은 살이 가려워 ”가 내가
 케빈과 악수하며 생각해 낸 말의 전부였다
 “판돈을 나르는 더 쉬운 방법이 있을텐데 .”
 그는 씩 웃으며 머리를 한 쪽으로
 기울였다 . “물론이지 . 가짜 우산 . 엉터리
 랩탑 컴퓨터 . 기부스에다가 속이 빈 목발도
 있지 . 한 때는 온갖 기기를 동원했었지 .
 제임스 본드 식으로 . 하지만 속이 빈
 목발을 FBI에 설명하기는 벨크로 테잎보다
 훨씬 더 어렵다네 .”

내 몸에 25만 달러를 테잎으로 붙여놓지
 았았더라면 나는 그가 농담을 한다고
 생각했을 것이었다 . 하지만 , 케빈은
 정말로 진지했다 . 그는 우리 거래의
 자기몫을 수행하고 있었고 , 그것은 바로
 외부인 어느 누구도 들어본적이 없는
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.

내가 케빈 루이스를 만난 것은 거의
 7년전 , 보스턴의 한 술집에서였다 . 그가
 MIT를 떠나기 두어 해 전에 나는 이미
 하버드대를 졸업한 상태였는데
 우리에게는 공통의 친구가 몇 명 있었고
 스포츠 , 대학가 술집에서 늦은 밤 보내기
 와이드스크린 TV같은 공통의 취미도
 있었다 . 서로를 소개받았을 때 나는 막
 발돋움하는 작가로서 첫번째 소설을
 출간할 참이었다 . 내가 아는 한 , 케빈은
 일종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에서
 일하고 있었는데 그가 거기에 대해 자세히
 말해준 적은 없었다 ---아마도 내가 물어보고
 싶을 만큼 흥미가 없었기 때문이리라 .
 케빈은 너무나 전형적인 MIT졸업생으로
 보였다 : 타고난 엔지니어로 . 처음 그를
 만난 이후 수년동안 내가 작가로서 경력을
 쌓아가면서는 우리는 거의 마주치지

않았다 . 그를 다시 만난 것은 거의 6년 뒤로
 펜웨이 파크에서 몇 블럭 안 떨어진 한
 아파트의 수퍼볼 파티에서 우연히
 마주치면서였다 . 케빈은 라스베가스에서
 “업무 ”를 보고 돌아온 길이었다 .
 수퍼볼게임 전반전이 끝나고 TV에서 중간
 쇼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케빈과 단둘이
 부엌에서 마주하고 있었다 . 짧은
 인사치레를 교환한 뒤 , 케빈은 놀랍게도
 목소리를 낮추더니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
 하는 것이었다 : “자네의 다음 책의 재료가
 될 멋진 이야기를 갖고 있네 .” 라면서 그는
 말문을 열었다 .
 나는 그 순간 즉시로 부엌을 벗어날
 궁리를 했다 . 다른 모든 작가들처럼 , 이런
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이미
 수천번이나 들었었다 . 사람들은 누구나
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는
 이야기를 하나씩은 갖고 있었다 : 내가
 봐서는 , 가상세계를 대신할 만큼 흥미있는
 현실은 드물었다 .

그러나 케빈이 자신의 이야기를
 털어놓기 시작했을 때 , 나는 목 뒤의 털이
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. 다른 각테일
 파티들에서 들은 수천가지 이야기들과는
 달리 , 케빈의 이야기에는 고도로
 흥미진진한 , 영화적인 스릴러 작품을 만들
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 있었다 ---
 하지만 , 그의 이야기는 사실 이었다 . 케빈이
 내게 털어놓은 모든 것은 실제로 일어난
 일이었다 . 그는 그 삶을 살았었다 , 1분도
 거르지 않고 , 그리고 이제 그는 내가 그의
 삶을 종이 위에 옮기도록 허락한 것이었다 .
 “왜지 ?” 놀란 나는 그 이유를 물었었다 .
 케빈은 그러나 결코 내 질문에
 직접적인 대답을 주지 않았다 . 시간이
 흐르면서 , 나는 나름대로 그 답을 이리저리
 짜_추려고 시도했다 .
 케빈은 엄청난 어떤 일의 한
 부분이였다 . 그와 그의 친구들은 베가스
 역사의 가장 큰 계책중 하나를 저질렀다 ---
 게다가 아무도 그 내용을 쥐뿔만큼도 알지
 못했다 .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은
 만인 앞에서 그 경험을 되살아보려는 그

나름의 방식이었다 . 자신에게 , 또 관심있는
다른 사람들에게 , 실제로 그런 일이
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방법 .
무엇보다도 , 그것은 케빈이 스스로의
선택 , 자신으로 하여금 이중의 삶을 살게 한
그 결정들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기도 했다 .
그의 선택중 많은 부분이 외부에는
비도덕적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었다 .
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, 케빈은 그가 한
일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믿는
사람들에게 자신을 해명할 수 있었던
것이다 .

다시 말해서 , 그의 이야기는 일부는
자랑 , 일부는 고백이었다 . 나로서는 , 그냥
듣고만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근사한
소재였다 .

수퍼볼 경기가 다른 방에서 중계되고
있는 동안 , 케빈이 내게 한 가지 제안을
했다 . 그는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
약속했고 , 그가 접촉하는 사람들과 그의
생활방식에 내가 접근할 수 있도록
허락했다 . 자신의 도박시스템도 가르쳐 줄
것이고 카지노의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도
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.

대신 , 나는 그에게 그가 빛날 수 있는
시간을 주기로 했다 .

케빈의 이중생활을 파고들면 들수록
우리의 거래를 통해 내가 엄청난 노다지를
발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. 마침내
글로 윽길 준비가 끝나 책상 앞에 앉으니 ,
케빈의 이야기가 마치 현란한 총천연색의
베가스 쇼처럼 내 눈앞을 섬광처럼
스쳐가는 것이었다 ...